



# 외국오페라의 레지테아터(Regietheater) 연출 양상에 관한 소고: 장수동 연출 작품을 중심으로

# 목차

- ▶ 1. 발표자 소개: 왜 연출자에게 주목하게 되었는가?
- ▶ 2. 레지테아터 개념과 발생 배경
- ▶ 3. 레지테아터 유형
- ▶ 4. 장수동 연출 레지테아터 오페라 유형 고찰
  - 1) 장수동 연출 레지테아터 작품 개관
  - 2) 장수동 레지테아터 작품 유형 분석
    - (1) 아시아버전 <리골레토>
    - (2) <섬진강 나루>

# 1. 왜 연출자에게 주목하게 되었는가?

- ▶ 음악학 교수
  - ▶ 한국연구재단 연구소중점지원 사업 선정: 창작오페라 중점사업단
    - 총 5개 작품 공연: 임준희 <천생연분>  
최우정 <달이 물로 걸어오듯>  
나실인 <나비의 꿈>  
박영근 <보석과 여인>  
이근형 <나는 이중섭이다>
  - ▶ 국립대학육성사업:
    - 재난로봇 오페라 [레테] 창작 및 초연 (작곡 김주원/ 대본 황정은)
  - ▶ (사)대전시민오페라단 창단 : “시민을 무대로!”
    - 오페라 [양화진] 제작 및 초연/재공연 3회 (작곡 김주원/ 대본 전정임)
- ➔ 대본가/작곡가+ 연출가는 또 한 사람의 창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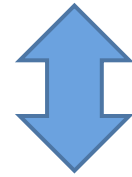
# 1. 왜 연출자에게 주목하게 되었는가?

- ▶ 러시아 연출가 메이에르홀드  
(Vsevolod Emil'evich Meierkhol'd, 1874-1940)
- ▶ 연출가의 역할:  
'한 사람의 예술가의 지적 · 기술적 책임 하에서  
한 편의 연극이 만들어지는 총체적인 창작 과정'으로 규정
- ▶ 역사상 최초로 자신을 '연극의 작가'라고 명명\*
  - ➔ 연출가는 한 사람의 창작자로서 작품이 무대에 실현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는 의미

\*전정옥, "'연극의 작가'로서 연출가의 희곡 재구성 방법론 연구 -메이에르홀드와 발레리 포킨 <<검찰관>> 수행자 텍스트를 중심으로,"[드라마연구] 31 (2009), 241.

## 2. 레지테아터 개념과 발생 배경

▶ 레지테아터(Regietheater)=연출가의 연극



작가의 연극

▶ “연출가가 오페라나 연극이 상연되는 방식을 자유롭게 고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대적 관행” (Wikipedia)

# 레지테아터 개념

## ▶ 번안오페라 vs 레지테아터 오페라

번안(翻案): 원작의 내용이나 줄거리는 그대로 두고 풍속, 인명, 지명 따위를 시대나 풍토에 맞게 바꾸어 고침 (네이버 지식백과)

➔ 외국어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등장인물이나 지명을 우리나라식으로 바꾼 작품

- 레지테아터보다 소극적인 각색의 의미
- 현재 한국오페라계에서는 “레지테아터”라는 용어의 생소함 때문에 “번안오페라 ” 라는 용어가 더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두 용어가 혼용됨.

# 레지테아터 개념

- ▶ 레지테아터는 독일어 'Regie'+ 'Theater'의 합성어
- ▶ 'Regie': '극 작품의 연출(감독)'을 의미  
라틴어 'regere'(감독하다) → 프랑스어 'régie' → 18c말, 독일어로 사용
- ▶ 'Theater'는 그리스어에서 유래: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  
그리스어 'théatron' → 프랑스어 'théâtre' → 17c부터 독일어로 사용

# 레지테아터 개념

- ▶ 일반적 의미: 연출이 텍스트와 음악만큼 중요
- ▶ 부정적 의미: 어떤 레지의 유형이 드라마를 지배한다거나, 해체한다거나, 의문시한다거나, 스토리를 변형시킨다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드라마를 해석하기까지 한다는 비판적 시각



# 레지테아터 발생 배경

-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  
탈권위적, 탈신화적, 해체주의적 지향성
- ▶ 작품/텍스트의 권위를 독식해왔던  
저자는 죽었다(바르트, 푸코) 해체되었다(데리다)
- ▶ 독자의 자율적 텍스트 해석 역시 권위 갖게 됨.
  -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의미는 독자에게 다양하게 해석 가능
- ▶ 독자/연출가의 자의적 텍스트 해석은 연극계에 큰 반향
- ▶ 연출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고전극의 현대화 유행
  - ➔ 오페라 연출 겸하던 연극 연출가에 의해 이러한 연출 경향이 자연스럽게 오페라계로 넘어옴.

# 레지테아터 발생 배경

- ▶ 오늘날 '레지테아터 오페라(Regietheater opera)' 혹은 '레지오페라 (Regieopera [독어: Regieoper])'라고 불리게 된 연출가 중심 오페라의 탄생은
- ▶ “대본에 상세한 무대 지시를 적어 놓고 자신의 모든 작품을 직접 연출한 ‘최초의 본격적인 오페라 연출가’이기도 했던 리하르트 바그너와 깊은 연관
- ▶ 바이로이트에 올려진 빌란트 바그너(Wieland Wagner, 1917-1966, 오페라연출가, R.바그너의 손자) 연출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발퀴레>나 파트리스 쉐로(Patrice Chereau, 1944-2013, 프랑스영화감독)의 <니벨룽의 반지>를 통해 극도로 단순화된 상징적 무대 장치나 현대적 스토리 라인으로 재구성한 완전히 새로운 성격의 연출 방식이 도입
- ▶ 1970-80년대 다른 작곡가 작품으로 확장, 간헐적 등장
- ▶ 1990년대 독일, 프랑스 중심으로 유럽 무대에서 확고한 트렌드로 자리잡음.

- ▶ 레지테아터는
- ▶ 연극보다는
- ▶ 오페라에서 더 실행이 어려움
  - ➔ 음악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 3. 레지테아터 유형

- ▶ 위르겐 쿨넬(Jürgen Kühnel, 1944-2018) 레지테아터 유형 분류
  - 문학자, 연극학자, 중세학자, 비교문학자

분류	내용
유형 1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무대 연출
유형 2	드라마에 기초를 둔 희화적-사실적 접근
유형 3	스토리를 작가의 시대, 혹은 현시대로 이동한 연출
유형 4	스토리에 따르지 않고 연출가의 정신적 반응과 반작용을 무대화한 연출

# 레지테아터 유형

- ▶ 유형 1
  - ▶ 무대나 의상, 소품 등을 상징적으로 구현
  - ▶ 예) 미니멀리즘(minimalism) 무대 연출
- ▶ 유형 2
  - ▶ 원작의 텍스트를 연출가가 일부 변형하거나 재구성
- ▶ 유형 3
  - ▶ 원작의 작품 배경을 연출가가 의도하는 특정 시대로 이동
- ▶ 유형 4
  - ▶ 원작에서 제시하는 텍스트보다 연출가의 정신을 더욱 깊게 반영하여 연출

# 레지테아터 유형

- ▶ 퀴넬: 유형 3 '시간대의 이동' 은 '디제틱(diegetic) 변환'  
=실용적 변환
- ▶ 예) 무대에 그 시대를 상징하는 물건들(선글라스, 텔레비전 모니터, 기관총,  
현대적 유니폼, 자동차 등) 제시
- ▶ \*디제틱: (영화의 음악 등이 배경으로 쓰인 것이 아닌)  
영화상의 사건에서 나온

# 레지테아터 유형

- ▶ 한층 더 내적인 접근은 “의미론적 변환”이라 주장
  - 오페라 속 등장인물을 매우 엄격하게 개조시키거나,
  - 하나의 오페라 작품을 아이러니하거나, 풍자적이거나, 냉소적으로 해체하는 것
- ▶ 예) 마틴 쿠세이(Martin Kusej, 1961-, 오스트리아) 연출,  
모차르트 <돈 조반니> 공연 (2002, 잘츠부르크)
  - 주인공 돈 조반니를 성적불능자인(impotent) 호색한으로 묘사
  - 스토리의 끝을 돈 조반니가 하인 레포렐로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바꿈.

## 4. 장수동 연출 레지테아터 오페라 유형

- ▶ 오페라 연출가 장수동
- ▶ 1981 연극연출가로 데뷔
- ▶ 1983년 오페라상설무대(김일규 단장)에서 오페라 연출가로 입문
- ▶ 밀라노 라 스칼라 오페라극장/ 뉴욕 BAM에서 오페라 연출 전공
- ▶ 1993년 푸치니 <마농 레스코>(국립오페라단)로 오페라연출가 데뷔
- ▶ 1994년 서울오페라앙상블 창단: 오페라 전문화 목표
- ▶ 그랜드오페라 <카르멘>, <라 트라비아타>, <토스카>, 창작오페라 <안중근>, <황진이>, <이중섭> 등 총 150편 오페라 연출
- ▶ 현) 서울오페라앙상블 대표 및 예술감독
- ➔ '우리의 얼굴을 한' '한국오페라의 세계화'
- ➔ 소극장오페라운동=오페라 상용화





# 1) 장수동 연출 레지테아터 작품 개관

초연 연도	작품명	원작	배경
1997	<서울*라 보엠>	푸치니 <라 보엠>	1980년대 신촌 5·18의 피해자 하영/광주 진압군 한솔
2003	<도시의 뺨에로>	레온카발로 <팔리아치>	1970년대 서울 광화문 태석(카니오) 애란(넛다)/ 극중극: 처용극
2006	아시아 버전 <리골레토>	베르디 <리골레토>	20세기 말 아시아의 한 가상도시K 거대자본의 권력하에 상실해가는 아시아적 가치
2013	브리튼 탄생 100주년 <섬진강 나루>	브리튼 <도요새의 강> (Curlew River)	8·15 광복 이후 4·3 제주, 6·25, 4·19, 5·18, 세월호 희생자 등을 위한 레퀴엠
2022	<오르페오- 그 영혼의 노래>	글루크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바리(거리의 악사) 세화(지하철에서 죽은 연인) 바리데기설화/씻김굿 접목

## 2) 장수동 레지테아터 작품 유형 분석

- ▶ (1) 아시아버전 <리골레토>
- ▶ (2) <섬진강 나루>

# (1) 아시아버전 <리골레토>

- ▶ 연출가의 의도
- ▶ 거대자본에 함몰된 아시아의 가상 항구도시 K를 무대로 하여, **디아스포라** 출신인 리골레토를 광대 요리사로, 가족을 잃고 밀항선에서 피붙이로 만난 질다를 양녀로 설정해서 거대자본이 벌이는 악행에 비굴하게 기생하는 리골레토의 굴곡진 삶과 좌절을 통렬하게 그린 작품
- ▶ 음악과 극의 일치'를 보여주는 불멸의 오페라 <<리골레토>>를 모던 아시아 오페라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이탈리아 오페라의 재현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전쟁 난민 출신의 아시아인의 삶을 통해 시리아 내전, 미얀마의 군부독재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빚어낸 수백만 명의 난민들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함께 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략) 이러한 주제의 오페라 작업이야말로 한국오페라의 세계화의 초석을 다지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2022 공연 프로그램 노트에서)
- ➔ 아시아 버전 <<리골레토>>에서 표현하려는 것은 세계화의 구호 속에 무너져 내린 '아시아적 가치'

# (1) 아시아버전 <리골레토>

## ▶ 공연 현황

- ▶ 2001 (글로리아오페라단)\_현대판 <리골레토>
- ▶ 2006 (서울오페라앙상블)\*\_표준 버전
  -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배역 더욱 명확히 설정
- ▶ 2007 안산문화예술의전당
- ▶ 2008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 ▶ 2010 북경국제음악제 초청
- ▶ 2022 마포아트센터\_콘서트오페라(전막 공연)
- ▶ 2025 오페라 갈라, 광림아트센터 장천홀



# (1) 아시아버전 <리골레토>

## ❖ 배경 비교

구분	원작	아시아 버전
전체	16세기경 이탈리아 북부 만토바 및 그 근교	21세기 난민들이 모여 사는 아시아의 한 가상의 항구도시 K
1막 1장	만토바 궁정	다국적 기업 젊은 CEO인 두카가 펼치는 비밀 파티장
1막 2장	만토바 교외의 한적한 작은 집	허름한 목조건물이 몰려있는 항구 뒷골목 집단 난민촌
2막	만토바 공작의 저택 안	두카 소유의 하이테크 빌딩의 지하 아지트
3막	강변에 있는 적막한 자객의 오두막집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멀리 보이는 해변의 폐선착장

# (1) 아시아버전 <리콜레토>



2025.6.20. 광림아트센터 장천홀 공연

## (1) 아시아버전 <리골레토>

### ❖ 등장인물 비교

구분	원작	아시아 버전
리골레토	만토바 공작의 어릿광대	다국적 기업 보스의 요리사
질다	리골레토의 딸	리골레토의 양녀 밀항선에서 피붙이로 만남
두카	만토바 공작	다국적 기업 젊은 CEO 무기 밀매업자
스파라푸칠레	자객(刺客) 살인청부업자	보트피플 출신의 자객 살인청부업자
막달레나	스파라푸칠레의 여동생 범행을 도움	스파라푸칠레의 의동생(義同生) 거리의 집시
몬테로네	두카 공작에게 딸을 농락당한 백작	대지주였다가 몰락한 인물

# (1) 아시아버전 <리골레토>

- ▶ [아시아버전 <리골레토>의 레지테아터의 유형]
- ▶ 유형 3:
- ▶ 원작의 작품 배경을 연출가가 의도하는 특정 시대로 이동
- ▶ 디제틱 변환: 무대장치, 소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대 변화와 연출가의 의도를 드러냄.
- ▶ 번역(가사 변환) x
- ▶ 등장인물 이름 변환 x
- ▶ 음악 x



## (2) <섬진강 나루>

- ▶ 브리튼(B. Britten, 1913-1976)의 오페라  
<Curlew River>(도요새의 강, 1964)의 레지테아터 작품
- ▶ [공연 현황]
- ▶ 1997 국립오페라단 초연 (시인 김용범 대본)
- ▶ 2013 벤자민 브리튼(Benjamin Britten, 1913-1976)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  
(서울오페라앙상블 주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 2025년 재공연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 (2) <섬진강 나루>

### ▶ 오페라 <Curlew River>(도요새의 강)

- 작곡가 브리튼(B. Britten, 1913-1976)이 일본 여행 중 일본의 전통가무극인 노(能, のう)를 관람한 후 감동을 받아 그 내용을 중세 기적극(Miracle play) 형태로 만든 현대오페라
- 줄거리: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실성해서 세상을 떠돌며 아이를 찾아 헤매는데, 이 슬픔과 한은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함께 간절한 기도를 바친다. 결국 배는 한 소년의 무덤 앞에서 멈추고, 여인은 그 소년이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소년의 영혼과 만나 소년의 영혼은 부활하고, 어머니는 광기에서 해방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 수도사들 등장→ 배역에 따라 옷을 갈아입고 기적극 공연 → 다시 수도사들로

## (2) <섬진강 나루>

### ▶ 장수동 연출 <섬진강 나루>

- 시인 김용범(1954- )이 브리튼의 <도요새의 강>을 <섬진강의 한 나루터> 이야기로 번안한 것을 무대화
- 전쟁 통해 죽은 아이와 그 어머니를 통해 우리 시대의 해원상생(解冤相生)을 노래함.
- 8·15 광복 이후 4·3 제주에서부터 6·25 한국전쟁, 4·19 민주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세월호 사고에 이르기까지 '국가공권력에 희생된 무명의 젊은 영혼들에게 바치는 초혼곡 (한국판 레퀴엠)
- 판소리와 씻김굿이 어우러진 현대판 오페라
- 배경: 시대를 특정하지 않음. (흰 상청喪廳 같은 무대, 종이옷, 종이배 등으로 그 시절을 초혼)

\*초혼(招魂):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혼을 소리쳐 부르는 일

## (2) <섬진강 나루>

[노]

귀족의 아내

인신매매범에게 납치

모자 손잡자 환상 사라짐

불교의 세계

[도요새의 강]

서쪽나라 산봉우리아래

외아들 납치

아이 영혼 위해 기도→구원

기독교의 세계

[섬진강 나루]

검은산 아래 한적한곳

전쟁통에 군인들에게 끌려감

아이와 재회 저승만남 기약

무속의 세계

## (2) <섬진강 나루>



2025.5.16.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공연

## (2) <섬진강 나루>

- ▶ 레지테아터 방식
- ▶ 1. 번역을 하면서 시대/장소 변환
  - 중세시대 서양 ➔ 임진왜란(2013 버전) 시 한국  
시대 특정되지 않은 과거(2025버전)의 한국
- ▶ 2. 스토리의 변환
  - 의역을 통해 연출가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표출
- ▶ 3. 음악의 변환
  - 수도사들의 라틴어성가 부분 ➔ 도창(국악인)이 새로운 선율과  
가사로 노래

## (2) <섬진강 나루>

### ❖ 1. 시대/장소 변환

- ▶ 16세기 중세
  - ➔ 임진왜란(2013 버전) 시  
시대 특정되지 않은 어느 과거, 전쟁이 끝난 후(2025버전)
- ▶ 앵글로 색슨 시대의 옛 왕국 이스트 앵글리아
  - ➔ 섬진강 나루
- ▶ 커얼류 리버 (도요새가 우이우이하고 슬프게 우는 강)
  - ➔ 섬진강

## (2) <섬진강 나루>

- ❖ 2. 스토리변환: 전쟁의 참혹함과 슬픔을 강조/ 무속적 결말
- ❖ 나그네: (원작) 실성한 여인을 뱃사공에게 소개해주는 인물  
➔ (섬진강) 죽은 어미의 유품을 어깨에 매고 떠도는 인물
- ❖ 뱃사공: (원작) 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추모하는 인물  
➔ (섬진강) 시대의 굴곡을 묵묵히 견디며 나루터를 지키는 인물  
아이가 M1소총에 찔려 죽었고 배에 피가 가득했다고 사실적으로 묘사
- ❖ 결말: 아이의 영혼과 어머니의 만남을 통해  
(원작) 천국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어머니는 정신이 돌아옴 (기독교적 구원)  
(섬진강) 한을 풀고 저승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한을 풀게 됨 (무속적 넋 달래기)



## (2) <섬진강 나루>

### ❖ 3. 음악변환



# CURLEW RIVER

## Fluß der Möwen

Libretto by  
WILLIAM PLO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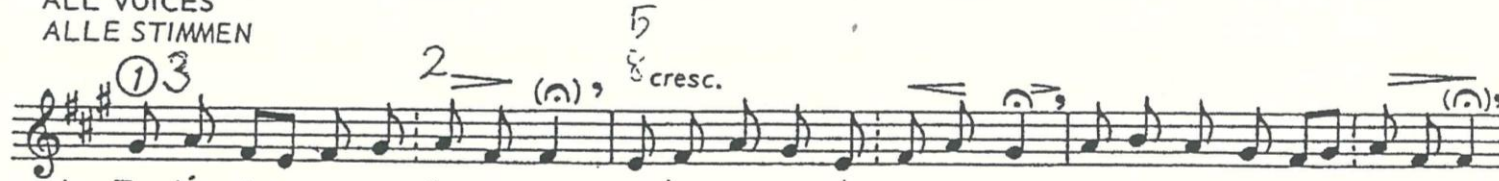
Music by  
BENJAMIN BRITTEN  
(1913-1976)

The ABBOT and his company of MONKS, ACOLYTES and INSTRUMENTALISTS walk singing in procession to the acting area.

Der ABT und sein Gefolge von MÖNCHEN, AKOLYTEN und INSTRUMENTALISTEN ziehen singend in Prozession dorthin, wo die Szene bereitet ist.

Slow  
Lento

ALL VOICES  
ALLE STIMMEN



1. Te lú - cis - an - te tér - mi - num, Ré-rum Cre - á - tor, pó - sci - mus, Ut pro tú - a cle - mén - ti - a,  
2. Pro - cul re - cē - dant sōm - ni - a, Et nóc - ti - um phan - tās - ma - ta: Ho - stēm - que nōs - trum cōm - pri - me,  
3. Prae - sta, Pā - ter pi - is - si - me, Pa - tri - que cōm - par Ū - ni - ce, Cum Spí - ri - tu Pa - rá - cli - to,  
아 - - - - - 관자재보살 반 - 실 반야바라밀다심 - 경

MONKS only (without Basses)  
nur MÖNCH



1. Sis prae sul — et cu - stō - di - a. A - - - - - men. A - - - - - men.  
2. Ne pol - lu - - an - tur cōr - po - ra. 바라옵소서 모 제사 바 하  
3. Rég-nans per — ó - mne sáe - cu - lum. 아제아-제 바라 아-제

중세성가: <오늘도 끝났도다>

## (2) <섬진강 나루>

- ▶ [레지테아터의 유형]
- ▶ 유형 4(+유형3)
- ▶ 원작에서 제시하는 텍스트보다 연출가의 정신을 더욱 깊게 반영하여 연출
- ▶ 기독교적 신앙과 기적 ➔ 진혼의 레퀴엠
- ▶ 번역(가사 변환) ○
- ▶ 스토리 변환 ○
- ▶ 음악 변환 ○

# 나가며

- ▶ 외국오페라를 원작 그대로 공연하는 것과 레지테아터로 공연하는 것 사이의 호불호는 여전히 있음.
- ▶ “음악작품을 작곡가의 의도대로 연주” vs “현대 청중의 기호에 맞게 연주”와 유사한 문제
- ▶ 한국에서는 원작 그대로 공연이 대세
- ▶ 오페라 공연의 다양성을 위해 레지테아터 공연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The header of the slide features a series of overlapping horizontal bars in shades of red, orange, and purple. A small blue triangle icon is positioned to the left of the text.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